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9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당자	• 도로운영팀장 김기범 ☎ 440-3791 • 주무관 김동조 ☎ 440-37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터널, 4월 1일부터 무료로 통행하세요

- 2002년 4월 1일 개통 후 20년 만 -

- 통행량 증가 대비해 녹지대, 보행로 등 구조개선사업 예정 -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문학터널을 무료도로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학터널은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km 길이의 왕복 6차로(쌍굴터널) 민자도로로 2002년 4월 1일 개통해 문학개발(주)에서 20년 동안 유료로 운영해 왔다. 현재 문학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북쪽으로는 문학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연수구 청학동을 지나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져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이다.

시는 문학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7월 무료화 운영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이 일 평균 약 4만대에서 7만대로, 3만대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구조개선 사항은 지난해 9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며, 터널영업소 철거로 생기는 여유부지에 녹지대 및 쉼터조성, 단절된 보행로 연결, 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 관리동을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시는 문학터널이 무료화되면 인접한 남북축 주간선도로(독배로, 경원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원도심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학터널 무료통행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거듭나는 문학터널 조성을 위해 터널영업소 철거 등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문학터널 현황사진 1부.

